

CR 2005 - 04

FY2005 수입보험료 전망

2005. 6

보 험 개 발 원

CR 2005 - 04

CEO
Report

FY2005 수입보험료 전망

2005. 6

동향분석팀

보 험 개 발 원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
중분석하여,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
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< 목 차 >

I. 머리말	1
II. 경제 · 금융 환경	2
III. 수입보험료 전망	6
IV. 시사점	15

I. 머리말

- 최근 경제·금융 및 보험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전망 업무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 1회의 정기적인 보험산업 전망에 더해 수입보험료에 대한 수정 전망을 실시
 - 2005년에 들어서도 경기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어 보험산업 환경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망치를 재검토할 필요 대두
 - 보험산업의 경우 금융형 상품에 대한 인기 급증, 퇴직연금 도입 등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망을 재조정할 필요성 제기
 - FY2004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상품의 인기가 큰 폭 증가하고 단체보험의 급감세가 진정되면서 양적으로 양호한 실적 시현
- 이 보고서는 2004년 11월의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 주로 보험시장의 규모, 즉 수입보험료의 측면에서 보완하는 성격
 - 보험산업의 전망을 위해서는 자산, 손해율, 보험금지급률, 각종 수지 등 다양한 지표가 있으나 이 보고서는 주로 수입보험료의 규모 변화에 집중하여 수정 전망을 실시
- II장에서 우선 경제 및 금융 시장의 환경 변화를, 그리고 III장에서는 보험산업 전체의 흐름과 종목별 특징에 대해서 최근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, IV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전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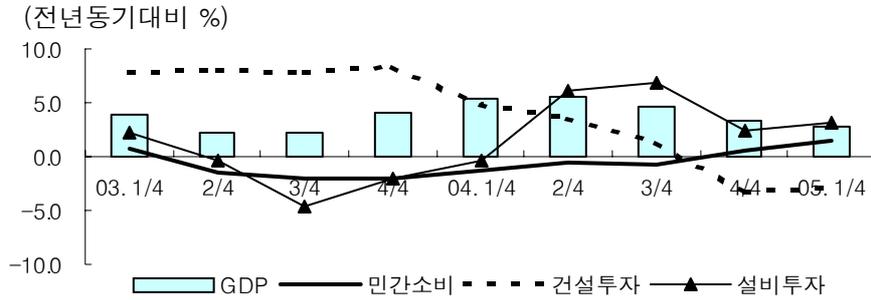
II. 경제 · 금융 환경

- 2005년 경제 · 금융 환경은 “수출 증가율 둔화 속에 완만한 내수 회복”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“저금리 지속 속에 원화 절상 압력 증가”라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-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“전반적인 불황국면과 저금리 국면의 지속”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1. 실물 경제 환경

- 2005년 세계 경제는 200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 상존
- IMF는 2005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EU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부진으로 전년도 5.1%보다 0.8%p 낮은 4.3%에 그칠 것으로 전망
- 2005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4.1%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민간소비는 가계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의 양극화 등 구조적 한계로 완만한 수준의 회복세에 그치면서 연 2.1%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민간소비는 2003년 2/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4년 4/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1% 전후의 부진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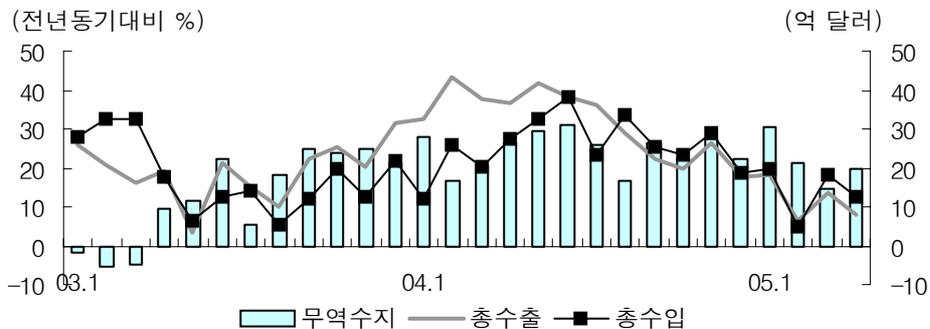
부문별 성장률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- 2005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건축 부문 감소로 0.5% 저조한 성장을, 설비투자는 8.2%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
 - 건설투자는 2004년 4/4분기 이후 감소세를 기록
-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, 원화 절상, 2004년 수출 급증세에 따른 추가 성장 부담 등에 따라 2005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 30.6%보다 크게 낮은 12.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 - 수입 증가율도 수출 증가율과 연동하여 하락하면서 2004년과 유사한 약 25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예상
- 소비자물가가 3%대 초반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

수출 수입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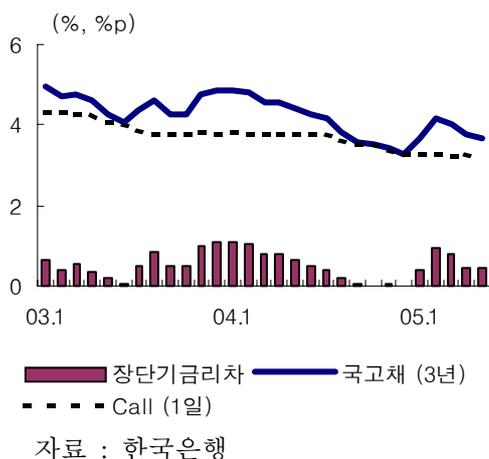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산업자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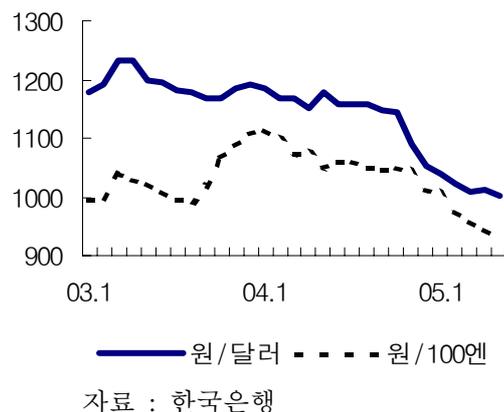
2. 금융 시장 환경

- 금리는 국제금리의 상승기조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금리는 국제금리의 상승기조와 내수 불황 국면이 다소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
 - 2005년 1월 들어 빠르게 반등하던 장기금리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이후 3%대 중반까지 하락
 - 통화당국은 국제금리의 상승과 국내 경기 부진이라는 상반된 요인을 고려하여 2004년 11월 이후 콜금리 운용목표를 3.25%에서 동결
- 원/달러 환율은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 하락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, 특히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아시아권 통화의 절상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원/달러 환율을 하락시킬 가능성

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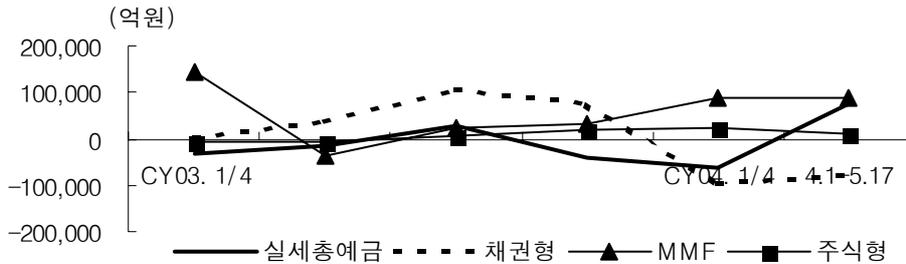
원화 환율 추이



- 2005년 중 저금리와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자금의 단기화와 채권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- 2005년 초 시중자금의 흐름은 MMF 등을 중심으로 단기화하고 있으며 채권형 상품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난 반면, 주식형 상품에는 적립식 펀드 등의 호조와 함께 꾸준히 순유입이 지속

금융상품별 자금 유출입 현황



- 전체적인 경기 부진으로 보험시장의 경제 여건은 취약할 것으로 전망
 - 투자 부진 및 수출입 증가율 둔화는 특종, 화재, 해상 등 관련 상품의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 - 시중 자금의 단기화도 장기상품인 보험 수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 환경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
 - 따라서, FY2005 보험수요는 고령화의 진행, 요율 조정, 제도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

2005년 경제 주요지표 전망

(단위 : %)

경제지표	2002	2003	2004	2005(F)
실질GDP	7.0	3.1	4.6 (4.9)	4.1 (4.3)
(경상GDP)	10.0	5.4	7.4 (6.7)	6.1 (6.3)
민간소비	7.9	-1.4	-0.5 (-0.7)	2.1 (2.2)
설비투자	8.4	-1.5	3.1 (3.9)	8.2 (8.2)
건설투자	5.4	7.6	1.1 (3.7)	0.5 (3.7)
경상수지규모(US\$억)	53.9	123.2	276.1 (295.9)	255.3 (247.8)
상품수지규모(US\$억)	147.8	221.6	381.6 (360.9)	367.4 (272.0)
상품수출	7.9	20.7	30.6 (30.5)	12.4 (5.9)
상품수입	7.8	18.0	18.0 (26.3)	15.2 (7.5)
소비자물가(연평균)	2.7	3.6	3.6 (3.6)	3.1 (3.0)
국고채(3년)	5.8	4.6	4.1 (4.1)	3.8 (3.7)
원/달러(연평균)	1,250.7	1,191.9	1,143.7 (1,145.0)	985.0 (1040.3)
실업률	3.1	3.4	3.5 (3.4)	3.4 (3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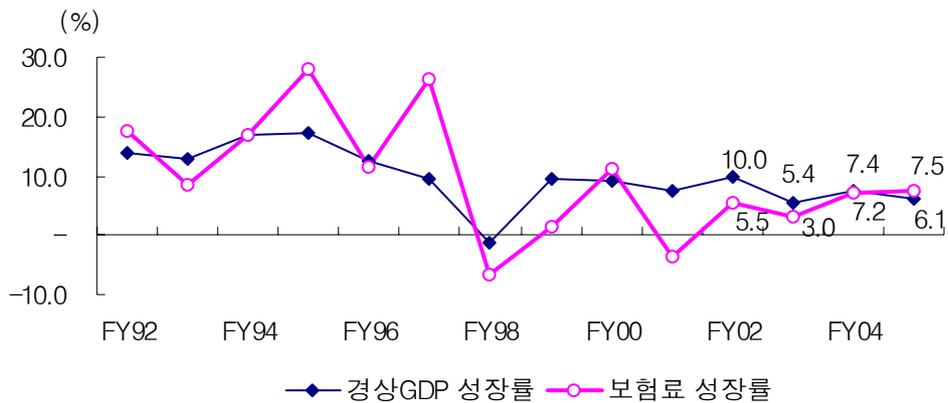
주 : () 2004년 11월 추정 · 전망 수치임.

III. 수입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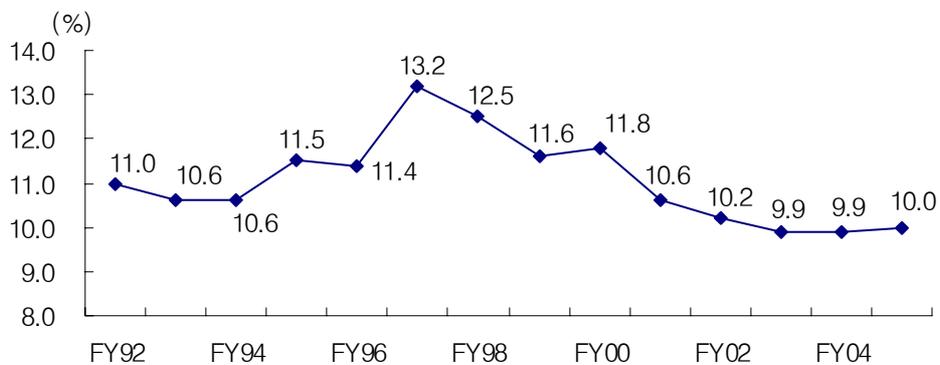
1. 주요 지표

- FY2004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건강, 연금 등에 대한 수요 확대, 변액보험의 급성장 등에 힘입어 FY2001 이후 가장 높은 7.2%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4년 연속 경상GDP 성장률을 하회
- FY2005 보험산업은 퇴직연금의 도입, 변액상품의 판매 확대로 7%대의 성장을 유지하는 반면,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여 5년만에 수입보험료가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

경상GDP 성장률 및 보험료성장률 추이



보험침투도 추이



주 : 보험침투도는 (수입보험료/경상GDP)임.

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FY1999	FY2000	FY2001	FY2002	FY2003	FY2004	FY2005(F)
생명보험	46.8 (0.8)	51.7 (10.5)	47.4 (-8.3)	49.1 (3.6)	50.4 (2.7)	53.7 (6.6)	57.7 (7.4)
손해보험	14.8 (3.9)	16.9 (13.8)	18.7 (10.9)	20.6 (10.3)	21.4 (3.7)	23.2 (8.6)	25.0 (7.6)
전 체	61.6 (1.5)	68.5 (11.3)	66.1 (-3.6)	69.7 (5.5)	71.8 (3.0)	76.9 (7.2)	82.7 (7.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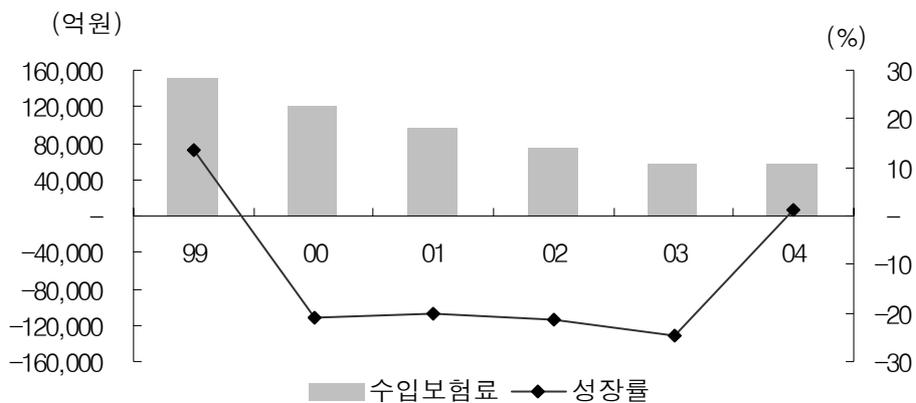
주 : ()는 억단위 성장률임.

2. 생명보험

□ FY200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, 변액보험에서 큰 폭의 실적 호전이 나타나고 예정 이율 인하에 따른 수요 선반영으로 전년도 2.7%보다 높은 6.6% 성장을 기록

① 평균 -20%대의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해왔던 단체보험시장은 FY2004 중 1.1%로 소폭 성장으로 반전하여 생명보험 성장률 회복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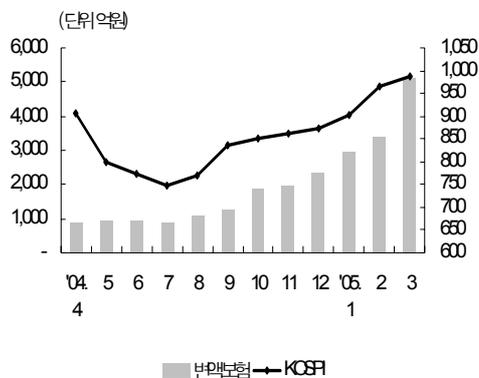
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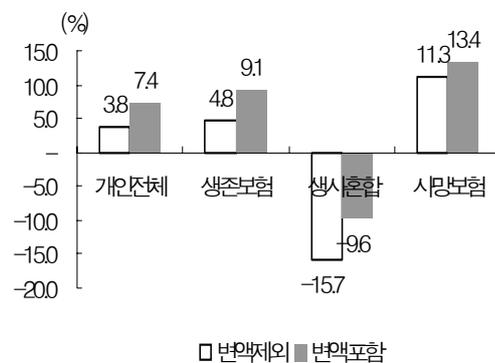
② 변액보험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유입액이 급격히 증가

- 변액보험은 2004년 4~9월 월평균 약 1,000억원이 유입되다가 주가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~2월 월평균 약 3,000억원, 3월에는 약 5,000억원의 수입보험료 거수

변액보험 수입보험료



FY2004 개인보험 성장률



- FY2004 개인보험의 성장률은 변액보험을 제외하면 약 3.8%로 나타나 변액보험을 포함한 경우의 7.4%와 큰 폭의 차이 존재

③ 표준이율 인하가 2005년 4월에 실시되면서 FY2005의 보험수요가 2005년 3월 중에 선반영

- 2005년 4월 표준이율인하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보험료인상 전 소비자들이 보험상품구매를 앞당김에 따라 보험수요의 선반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

* 최근 표준이율은 2004년 4월 5.00% → 4.75%(0.25%p ↓)
2005년 4월 4.75% → 4.25%(0.5%p ↓)로 인하

□ FY200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에서는 변액상품이, 단체 보험에서는 퇴직연금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체적으로 7.4%의 성장 예상

-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변액보험의 호조세로 7.7%의 성장 예상
 - 경쟁력을 상실한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를 연금을 중심으로 한 생존보험이 상쇄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
-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제의 도입에 따라 4.8%의 성장세를 기대

<종목별 성장률>

□ 사망보험

- FY2005 종신보험의 위축에도 이를 대체하는 CI보험 등의 판매와 건강보험 등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체적으로 11.0% 수준의 꾸준한 성장 예상
 - 2005년 8월의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실손보상보험 판매도 사망보험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□ 생존보험

- FY2005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수요의 증가와 변액연금의 시장확대 등에 따라 15.8%의 높은 성장세 예상
 - FY2004 변액연금은 전년대비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, FY2005에도 고성장세 예상

□ 생사혼합보험

-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, 전통 생사혼합보험의 급속한 퇴조로 -14.7%의 빠른 감소세 예상
 - 비과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됨에 따라 생사혼합보험은

경쟁력을 상실한 상태

- FY2004 폭증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은 FY2005에도 큰 폭의 성장세 예상

□ 단체보험

- FY2005 단체보험은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 완화와 퇴직연금제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4.8% 성장 전망
 - 퇴직연금제의 도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『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』 작성시 제외되었던 퇴직연금보험료 전망을 포함
 -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FY2005 약 4조원이 넘는 수입보험료가 기존의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의 형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

FY200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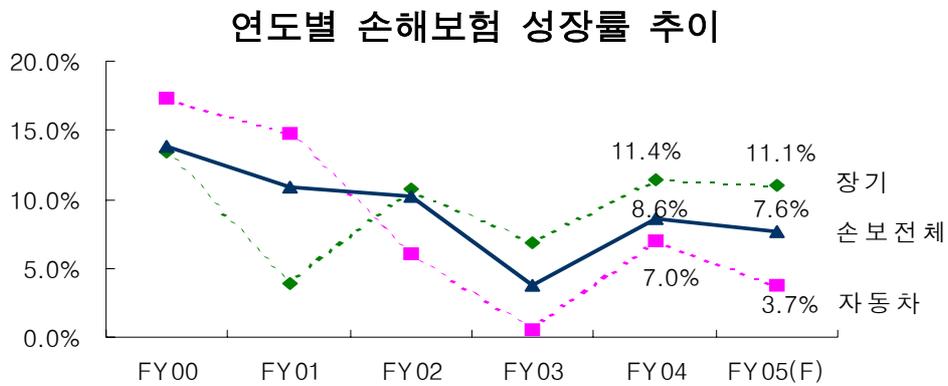
보험종목	FY2003		FY2004		FY2005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개인보험	447,161	7.6	480,031	7.4(4.5)	517,099	7.7(6.8)
- 생존	120,375	31.7	131,285	9.1(6.2)	152,028	15.8(18.0)
- 사망	231,844	8.5	262,964	13.4(12.4)	291,890	11.0(11.1)
- 생사혼합	94,942	-14.0	85,782	-9.6(-17.1)	73,181	-14.7(-25.7)
단체보험	56,764	-24.5	57,365	1.1(-16.2)	60,118	4.8(-9.1)
합 계	503,925	2.7	537,396	6.6(2.1)	577,217	7.4(5.3)

주 : 1) ()안은 2004년 11월 추정·전망 수치임.
 2)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되었음.

3. 손해보험

□ 손해보험 산업은 자동차보험이 저성장을 지속하는 반면, 장기손해보험이 3년 연속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성장을 주도하면서 시장 구조가 가계성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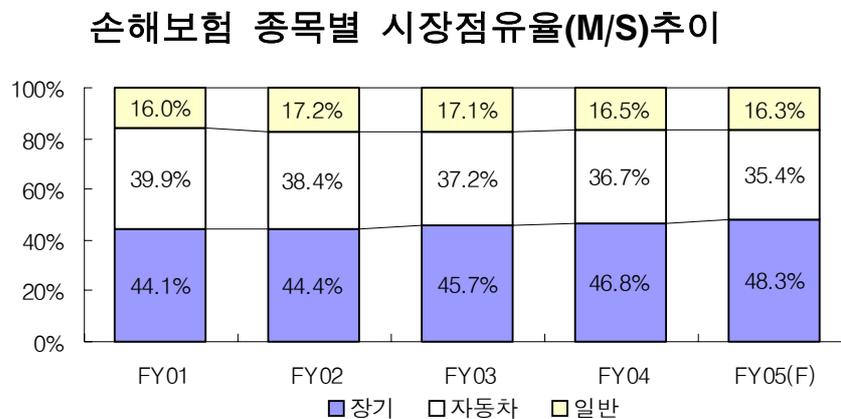
○ FY2004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바탕으로 8.6%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



주 :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, 퇴직보험을 포함함.

□ FY2005에도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7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○ 따라서, 종목별 M/S는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상대적 부진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50%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



주 :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연금, 퇴직보험을 포함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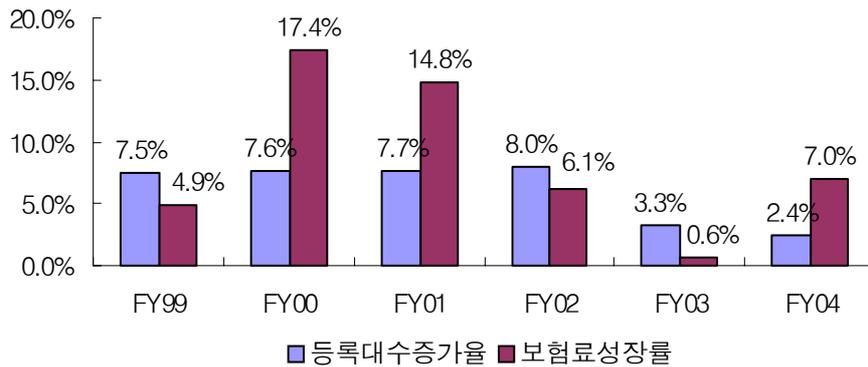
<종목별 성장률>

□ 자동차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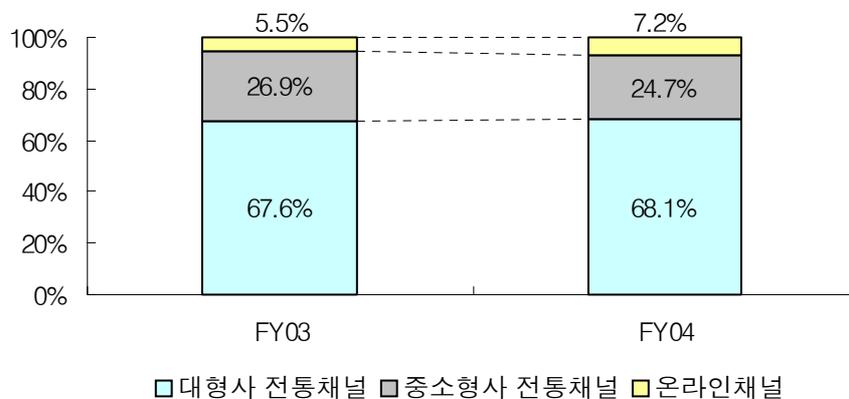
○ FY2004 자동차보험은 경기침체에 따른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,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2004년 11월 기본 보험료 인상으로 7.0%의 완만한 성장

- 등록대수 증가율은 2004년 하반기 이후 2%대로 둔화
- 온라인시장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.7%p 증가한 7.2% 기록

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및 보험료 성장률



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



○ FY2005 자동차보험은 시장 경쟁 가속으로 3.7%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

- 2004년 11월 기본보험료 인상, 2005년 5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 확대,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자보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전망

□ 장기손해보험

○ FY2004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, CI보험 등 신상품 판매와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상해부문의 수요 지속,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로 인하여 12.3% 성장

- FY2004 초회보험료 성장률 : 상해 88.0%, 저축성 120.4%

○ FY2005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수요 지속 전망으로 11.6%의 고성장세 예상

- 2005년 8월 생명보험의 개인 실손보상 허용, FY2004 고성장세에 대한 상대적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, 건강·질병부문에 대한 높은 수요 지속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

□ 일반손해보험

○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, FY2005에는 특종보험의 성장 지속, 화재보험의 성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6.6% 성장 전망

○ 특종보험

- FY2005 기술보험 및 종합보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,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의 고성장세 유지에 힘입어 12.5% 성장 전망

- 건설경기 둔화로 기술보험 성장이 감소되고,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종합보험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

- 책임보험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및 신상품 개발 등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, 상해보험은 생명보험 개인 실손보상 허용으로 성장폭이 제한될 전망

○ 화재보험

- 화재보험은 개별할인할증(SRP) 재정비를 통한 부당요율경쟁의 감소,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풍수재담보요율의 인상 등 보험료 수입 확대 요인으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.1% 성장 전망

○ 해상보험

- 해상보험은 해외재보험시장 Soft화에 따른 항공보험과 선박보험의 요율 인하,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에 따른 적하보험 성장률 하락 등으로 -1.7% 성장 전망

○ 보증보험

- 역모기지신용보험, 부동산거래보장보증보험 등 신상품 출시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, 가계신용 수요의 부진과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으로 전체 성장률은 -1.3%로 정체될 전망

FY2005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종목	FY2003		FY2004		FY2005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화 재	3,160	-1.8	2,937	-7.1 (-10.0)	2,998	2.1 (-1.0)
해 상	5,242	-6.5	5,071	-3.3 (-4.1)	4,985	-1.7 (-0.7)
자동차	79,606	0.6	85,208	7.0 (8.1)	88,361	3.7 (3.5)
보 증	9,419	0.6	9,018	-4.3 (-4.9)	8,901	-1.3 (-3.4)
특 종	18,740	7.2	21,181	13.0 (11.6)	23,829	12.5 (12.5)
장 기	85,794	7.1	96,353	12.3 (10.8)	107,530	11.6 (9.6)
개 인	6,873	1.3	6,799	-1.1 (1.5)	6,684	-1.7 (1.2)
퇴 직	4,949	12.5	5,622	13.6 (38.3)	6,595	17.3 (16.2)
합 계	213,783	3.7	232,189	8.6 (8.9)	249,882	7.6 (6.7)

주 : 1) ()안은 2004년 11월 추정·전망 수치임.

2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

IV. 시사점

- FY2005 보험산업은 변액보험, 퇴직연금, 건강보험, 연금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FY2004에 비해 다소 상승하면서 7%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
 - 보험침투도(수입보험료/경상GDP)는 FY1997 13.2%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FY2005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

-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상품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경영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 -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 운용에 있어서 위탁비중이 높고 금융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수익률로 자산 운용에 어려움 가중
 - 변액유니버설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워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
 - 퇴직연금은 타금융권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적절한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
 - 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생존리스크의 증가와 질병 관련 위험률리스크의 적절한 관리가 향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

- 저금리 저성장의 보험시장 환경에서는 양적 판매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산 운용 능력의 강화를 통한 적절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과 상품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

CEO Report 2005-04

FY2005 수입보험료 전망

발행일	2005년 6월 일
발행인	김 창 수
편집인	오 영 수
발행처	보험개발원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인쇄소	(주)유성사
	대표전화 2268 - 0676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
(☎368-4177)으로 하여 주십시오.